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2019년 7월 10일 | 조사역(G3) 정수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콜롬비아

산타페데보고타



## 일반개황

<b>면적</b> 1,139천 km <sup>2</sup>	<b>인구</b> 4,983만 명 (2018 기준)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경제실리외교
<b>GDP</b> 3,331억 달러 (2018 기준)	<b>1인당GDP</b> 6,684달러 (2018 기준)	<b>통화단위</b> Peso (Ps)	<b>환율(U\$기준)</b> 2,955.70 (2018 기준)

-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배 수준이며, 2018년 기준 인구는 4,983만 명으로 중남미 제3위, GDP 규모는 3,331억 달러로 중남미 제4위 규모임.
- 콜롬비아는 원유, 석탄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8년 8월 강경우파 성향의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산토스(Santos) 전 대통령에 이어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단체인 좌익무장혁명군(FARC)간의 평화협정 체결 및 2017년 FARC의 공식 해산 선언으로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치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회원국 및 한국, 미국, EU 등 FTA 체결국들과는 협력관계이나, 최근 정치·경제 위기사태를 겪고 있는 인접국 베네수엘라와는 오랜 외교적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3. 10 수교 (북한과는 1988. 10. 24 )

**주요협정** 문화협정('76), 사증면제협정('81), 과학기술협정('82), 무역협정('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이중과세방지협정('14), 자유무역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853,196	813,718	1,011,626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화학제품
수 입	432,729	651,351	834,392	커피, 광물, 의류

**해외직접투자 현황(2019.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56건, 332,655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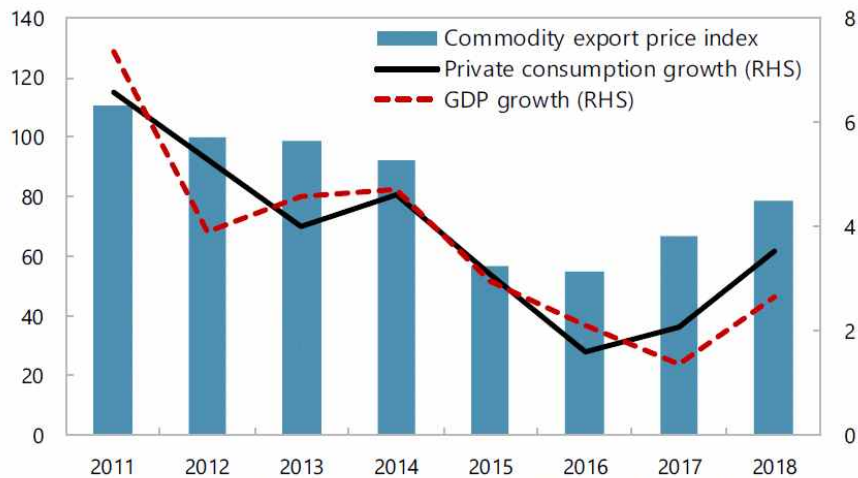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4.7	3.0	2.1	1.4	2.7
소비자물가상승률	2.9	5.0	7.5	4.3	3.2
재정수지/GDP	-1.8	-3.4	-2.4	-2.6	-2.2

자료: IMF, EU

###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및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성장 지속 전망

- 콜롬비아 경제는 원자재(원유, 석탄, 커피 등)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지난 2016~17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원유 생산량 축소, 민간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을 지속한 바 있음.
- 2018년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민간소비 증가,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상승했으며, 2019년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 3%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원자재 수출가격, 민간소비 및 GDP 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IMF

## 국내경제

###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에 따른 구제비용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18년 유가 회복세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정부의 목표수준(-3.1%) 내인 -2.2%를 기록하였음.
- 지난 2011년 정부는 재정준칙 수립을 통해 적정한 재정수지 규모를 관리해 2014년까지는 양호한 재정 상황을 유지해왔으나, 2015~17년 저유가 기조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 이상으로 확대됨.
- 2019년에는 지속적인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에 따른 치안인력 배치와 난민 구제비용 부담 가중으로 재정적자가 2% 후반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 재정준칙위원회(Fiscal Rule Advisory Committee)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를 감안해 2019년 -2.7%, 2020년 -2.3%까지 적자 확대를 허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인 3%대를 기록하며 안정 추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4%대에서 2018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여 목표수준 내로 관리되었으며, 2019년에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2~4%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수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5~16년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대를 기록한 바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	-19,762	-18,564	-12,027	-10,296	-12,661
경상수지/GDP	-5.2	-6.3	-4.3	-3.3	-3.8
상품수지	-4,641	-13,479	-9,148	-4,571	-5,316
상품수출	56,899	38,572	34,091	39,676	44,316
상품수입	61,539	52,051	43,239	44,247	49,633
외환보유액	44,943	44,778	44,976	45,448	46,087
총외채	113,786	124,100	138,320	146,630	155,585
총외채잔액/GDP	29.9	42.3	48.9	47.0	46.7
D.S.R.	19.9	28.0	26.2	38.4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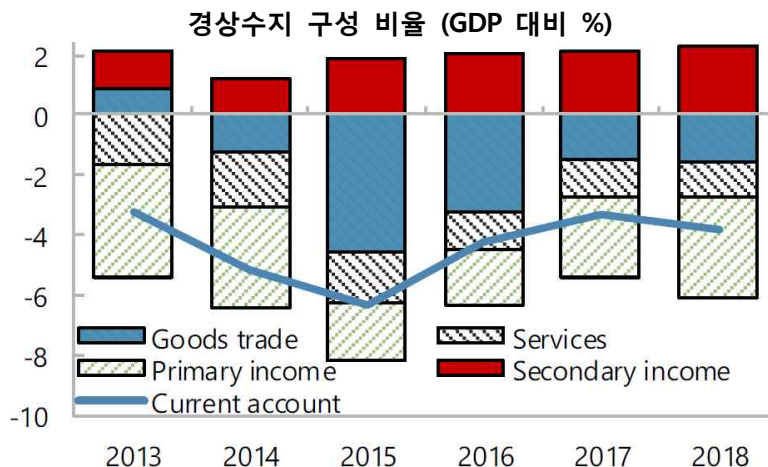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대 유지 전망

- 2018년에는 석유 및 원자재 수출액 증가폭보다 국내소비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폭이 전년대비 커지면서 경상수지가 GDP 대비 -3.3%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동일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인해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과 콜롬비아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자국송금으로 인한 소득수지 적자 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콜롬비아의 소득수지 적자 추이(백만 달러):

-12,521('14) → -5,727('15) → -5,228('16) → -8,405('17) → -11,141('18) → -9,455('19<sup>f</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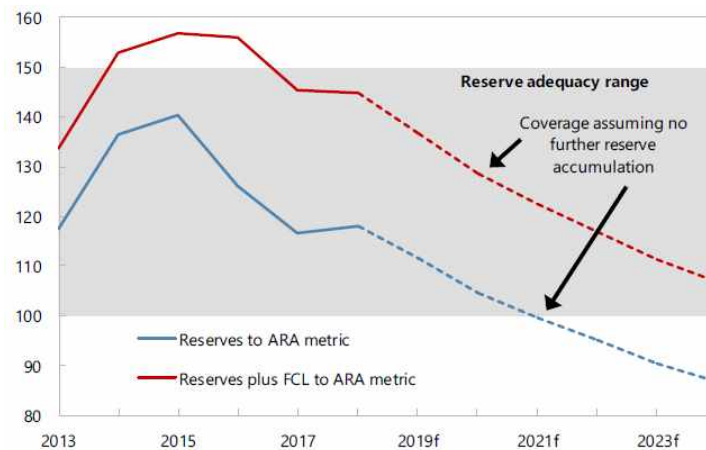
자료: IMF

## 외채상환능력

### FDI 유입 증가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유지

- 콜롬비아는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치안 개선에 따른 꾸준한 FDI 유입 증가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이 2015년부터 월평균수입액의 7~8개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동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IMF에서 제공하는 신축성 신용공여 계약(Flexible Credit Line)\*의 2020년 2차 연장 계약 시, 인출한도액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 2018년 9월부터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 관리 프로그램(Reserve Accumulation Program)을 시작함.
- 시장참여자들은 중앙은행에 지난 20일 간의 평균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미 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으며, 2019년 4월말까지 총 40억 달러가 중앙은행에 매도됨.
- \* IMF로부터 부대조건 없이 크레딧라인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위기 예방 목적의 IMF의 금융 수단. 2년 단위로 계약이 맺어지며, 2016년 6월 콜롬비아는 IMF와 115억 달러 규모의 FCL 계약을 맺은 후, 2018년 5월 계약을 연장함(계약만기는 2020년 5월).

콜롬비아 외환보유액 예상 변화 추이(ARA metric\*, %)



자료: IMF

\* ARA(Assessing Reserve Adequacy) metric: IMF에서 측정하는 국가별 외환보유액 측정단위로 100~150%가 적정수치로 간주됨.

### GDP 대비 외채규모 및 D.S.R.은 비교적 높은 수준

- 콜롬비아는 쌍둥이 적자 지속 및 환율 상승 등에 의해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45.9%, D.S.R.은 26.9%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18년 말 기준 외채 1,528억 달러 중 단기외채는 약 12%에 불과해 비교적 건전한 외채구조를 보이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원자재에 대한 수출 편중과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원자재(원유, 석탄, 커피 등)가 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여, 원자재 국제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이 전체 교역액의 26%(2018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기 변화에 민감함.

### 미비한 교통 인프라가 경제발전 저해

- 콜롬비아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교통 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40개국 중 도로 연결성(97위), 도로 품질(102위), 철도 서비스(125위) 등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콜롬비아 정부는 열악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주요 도시 및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 육성정책(4G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인 오데브레히트(Odebrecht)가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의 대가로 콜롬비아 정치인 및 관료에게 3,2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부패 스캔들 이후, 4G 프로그램 진행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공사기한 연장, 환경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임.

#### 4G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 현황

- 기 간 : 2014~24년
- 목 적 : 내륙 교통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
- 총 규 모 : 160억 달러
- 주요내용 : 총 8,170km의 도로 신설, 기존 도로의 복구 및 159개의 터널 건설 등
- 진행현황 (2019년 6월 기준)
  - (~'18년 8월) 총 67억 달러 규모의 9개 사업 금융종결(Financial Close) 및 공사 착수
  - ('19년 예정) 총 73억 달러 규모의 8개 사업 금융 협의 예정
  - ('20년 예정) 추가 6개 사업 금융 협의 예정

## 성장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2018년 기준 콜롬비아의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중남미 4위, 3위를 차지하고, 석탄 매장량과 생산량은 각각 중남미 2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또한 니켈, 금, 구리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1위 브라질, 2위 베트남)으로 2018년 기준 세계 커피 수출액의 8%를 차지하고 있음.

### 중남미 주요국가 부존자원 순위

순위	원유(배럴)		석탄(톤)	
	매장량	생산량/일	매장량	생산량/년
1	베네수엘라 (3,033억)	브라질 (268만)	브라질 (67억)	콜롬비아 (84.3백만)
2	브라질 (134억)	베네수엘라 (151만)	콜롬비아 (49억)	브라질 (2.7백만)
3	에콰도르 (28억)	콜롬비아 (87만)	베네수엘라 (7억)	베네수엘라 (0.2백만)
4	콜롬비아 (18억)	에콰도르 (52만)	-	-

자료: BP Statistics Review 2019

### 비교적 큰 내수시장 보유

- 콜롬비아는 2018년 기준 인구가 4,983만 명으로 중남미 3위, GDP는 3,331억 달러로 중남미 4위 규모로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8) 시장규모 부문에서 140개국 중 37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 \* 주요 중남미 국가 글로벌경쟁력지수 시장규모 순위: 브라질(10위), 멕시코(11위), 아르헨티나(34위), 페루(49위)

### OECD 가입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 현 이반 두케(Ivan Duque) 정부는 법인세 감면(33%→17%), 적극적 투자 유치 등 과거 Uribe(우리베) 정부 시절(2002~10년)부터 펼쳐온 친시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2019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65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54위), 칠레(56위)에 이어 제3위를 기록하여 타 중남미 국가대비 양호한 수준임.
- 특히, 자금조달(세계 3위), 소액 투자자 보호(15위)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2018년 5월, 중남미 국가 중 3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어 향후 정치·경제적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등 투자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국가 OECD 가입 현황: 멕시코('94년), 칠레('10년), 콜롬비아('18년),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가입 추진 중.



## 정책성과

### FARC와 평화협정 체결 후 이행에 지연

- 산토스 전 정부는 정부-반군 간 52년 동안 지속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좌익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상을 진행해왔음. 오랜 협상 결과 2016년에 평화협정안에 합의했으며, 2017년에 FARC를 공식 해산시켜 콜롬비아 치안 개선에 공헌함.
- 산토스 정부 이후, 2018년 8월 출범한 이반 두케 정부는 평화협정안이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FARC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상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정안 이행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FARC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시민들의 반감, 일부 FARC 잔여세력의 불법 마약거래조직 가담, 최후 반군세력인 민족해방군(ELN)과의 평화협정 협상 등 완전한 치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음.

### FARC 평화협정 체결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12년 11월	산토스 전 대통령, FARC와 협상 개시
2016년 9월	정부와 FARC, 최종 평화협정안에 합의
2016년 10월	평화협정안, 국민투표 결과 찬성 49%, 반대 50%로 부결*
2016년 11월	정부와 FARC, 개정**된 평화협정안에 합의
2016년 12월	평화협정 개정안, 의회 최종 통과 및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2017년 6월	FARC, 무장단체로서의 공식적인 해산
2018년 6월	이반 두케 대통령 당선 및 합의안 수정 필요성 제기

\* FARC 반군에 대한 면책조항 및 2026년까지 선거와 무관하게 FARC측에 10석의 의석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투표 부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함.

\*\* 개정안에는 FARC 멤버에 대한 비사법적 처벌 강화(체류가능지역 외 이동 제한 등) 및 은닉 정치자금 환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국회 내 FARC측 10석 의석 보장 내용은 유지됨.

## 정치동향

### 이반 두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려움

- 2018년 8월 취임한 강경 우파 성향의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과감하게 추진해온 주요 개혁 법안들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연합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함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당시 54%에서 29%(2019년 4월 기준)으로 급락함.
- 이반 두케 정권은 사법개혁, 반부패법안, FARC 반군에 대한 강경정책 시행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야당 연합의 비협조로 법안 시행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 상·하원에서 모두 50%에 가까운 의석수를 보유한 야당연합에 비해 이반 두케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민주중도당(CD)은 18%에 불과한 의석수를 보유하여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당별 상·하원 의석 분포 현황

정당	상원	하원	비고
민주중도당(CD)	19	32	여당
급진변화당(CR)	16	30	야당 연합
국가사회연합당(PU)	14	25	
자유당(PLC)	14	35	
보수당(PCC)	15	21	
녹색연합당(AV)	10	9	
FARC*	5	5	
기타	15	21	
총계	108	178	

\* 평화협정에 따라 FARC 정당은 상·하원 각각 5석씩 총 10석을 보장받음.

## 사회동향

### FARC와 평화협정 체결로 치안 개선 기대

- 2016년 FARC와의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2017년 6월 FARC의 해산 및 무장해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콜롬비아의 치안상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반 두케 대통령이 평화협정의 일부 수정을 추진하면서 협정안 이행이 다소 더뎠고 있으나,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전 산토스 정부부터 진행되어 온 또 다른 좌익반군단체인 민족해방군(ELN)과의 평화협상은 지난 1월 발생한 경찰학교 폭탄 테러의 배후가 ELN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재 전면 중단됨.

## 국제관계

### 베네수엘라 위기 사태로 치안 불안 및 구제비용 부담 가중

- 인접국인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정치·경제 위기에 따라 베네수엘라 난민이 콜롬비아로 대규모 유입되면서 치안 불안 및 인도적 구제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음.
- 콜롬비아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20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콜롬비아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1년까지 베네수엘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료, 교육 등)에 연간 약 16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해 콜롬비아 정부는 2019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한도를 기존 -2.4%에서 -2.7%로 상향 조정함.
-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게 현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2019년 1월 대통령으로 선서한 과이도(Guido)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이반 두케 대통령이 서로를 공개 비판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베네수엘라 2개 세력 지지 현황

구분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세력	후안 과이도(Juan Guaido) 세력
현 직책	베네수엘라 대통령 (2013년~, 연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2018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2019년 1월~)
정치 성향	좌파	우파
지지 국가	러시아, 중국, 쿠바, 볼리비아 등 중남미 좌파 정부	미국, 유럽연합(EU) 주요국, 브라질, <b>콜롬비아</b> 등 중남미 우파 정부

## 외채상환태도

###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콜롬비아는 1980년대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해당 경험이 없고,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 감안시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55억 달러(단기 15억 달러, 중장기 40.1억 달러) 중 연체금액은 15백만 달러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8.10)	4등급 (2017.10)
Moody's	Baa2 (2018.02)	Baa2 (2018.02)
Fitch	BBB (2017.10)	BBB (2016.07)

###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는 2006년 콜롬비아의 국가위험도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콜롬비아 경제는 2018년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증가,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도 3%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에 따른 구제비용 발생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대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는 국내소비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로 2019년에도 3%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8월 취임한 강경 우파 성향의 이반 두케 정부는 전 산토스 정부에 이어 친시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전 정부가 체결한 FARC 평화협정의 수정과 관련해 야당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나, 협정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치안 개선 및 FDI 유입 증가가 기대됨.
- 콜롬비아는 쌍둥이 적자 지속 및 환율 상승 등에 의해 외채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환보유고 관리 및 IMF 신축적 신용공여 등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 단기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위의 사항들을 감안해 콜롬비아 국가신용도를 기존과 동일한 C1으로 유지하고자 함.